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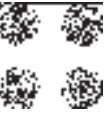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21.5.10 ~ 2022.5.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21. 5. 10 ~ 2022. 5. 9



발간사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준엄한 약속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어느덧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위기와 격변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했고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했던 집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커져서 쌓아온 성취와 노력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희망을 나누고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영광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손을 잡고 기쁨과 응원, 위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가 늘어나고,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에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룬 놀라운 국가적 성취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정부를 믿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침표가 아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차례

2021년

2021. 5. 17	수석·보좌관회의	……	8	2021. 8. 9	수석·보좌관회의	…	37
2021. 6. 8	제24회 국무회의	…	11	2021. 8. 30	수석·보좌관회의	…	40
2021. 6. 22	제26회 국무회의	…	14	2021. 8. 31	제38회 국무회의	…	43
2021. 7. 5	수석·보좌관회의	…	17	2021. 9. 6	수석·보좌관회의	…	46
2021. 7. 6	제29회 국무회의	…	20	2021. 9. 14	제40회 국무회의	…	49
2021. 7. 19	수석·보좌관회의	…	23	2021. 9. 28	제42회 국무회의	…	52
2021. 7. 20	제31회 국무회의	…	26	2021. 10. 12	제44회 국무회의	…	55
2021. 7. 26	수석·보좌관회의	…	29	2021. 11. 9	제48회 국무회의	…	59
2021. 8. 2	수석·보좌관회의	…	32	2021. 12. 7	제53회 국무회의	…	62
2021. 8. 3	제34회 국무회의	…	35	2021. 12. 21	제55회 국무회의	…	65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022. 1. 4	제1회 국무회의	……	70	2022. 3. 8	제11회 국무회의	…	85
2022. 1. 10	수석·보좌관회의	…	73	2022. 3. 14	수석·보좌관회의	…	88
2022. 2. 8	제7회 국무회의	……	76	2022. 3. 22	제13회 국무회의	…	91
2022. 2. 21	수석·보좌관회의	…	79	2022. 3. 28	수석·보좌관회의	…	94
2022. 2. 22	제9회 국무회의	……	82				



2021



수석·보좌관회의

2021. 5. 17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끈기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남은 임기 1년을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19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완전한 경제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최근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4월 취업자 수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65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인 것도 청년층 취업자 수가 2000년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성적이 글로벌 증시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은 우리 민간기업의 활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디지털과 그린, 혁신 벤처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인공지능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의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걱정이 큰 청년들과 일자리의 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래에 맞는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입니다. 곧 분배지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분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당부합니다. 새로 임명된 총리께서도 평소 현장과 소통을 중시해 온 만큼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만 현장 중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증원하는 한편 패트롤카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는 등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제24회 국무회의

2021. 6. 8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국민께서 이룬 성취인 만큼 국민께서도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또한 K-방역, 한국판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



번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 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입니다. 상위 상장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 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하여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됩니다. 노동존중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자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제26회 국무회의

2021. 6. 22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께서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과 창의성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온 국민께서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차 등 미래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뛰어난 공감력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 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확인되었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든 양자 정상회담에서든 우리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낙후된 분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때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하위권이거나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특별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7. 5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WHO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큼니다.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국민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목표치를 거듭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의 30%가 1차 접종을, 10%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긍정



적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 4,0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습니다.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다시 억제하는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심하여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개지, 산지 태양광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하여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9회 국무회의

2021. 7. 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엔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큼니다.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석삼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큼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도 제정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7. 19

전 세계가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19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 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



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19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 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께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기 전력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31회 국무회의

2021. 7. 20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제 무역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합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더욱 속도 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습니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 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 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역상권 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주도의 혁신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옵니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7. 26

34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하여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 인력 확충 등 방역대응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 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큼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평택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항만의 산업안전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지법」 등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입니다.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8. 2

여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기다렸던 휴가조차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리며, 특히 누적된 피로와 폭염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는 나라들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자마자 다시 확산이 증가하고, 심지어 접종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방역 전선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코로나19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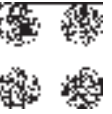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확진자를 신속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역의 장점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대부터 40대까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대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아름다운 도전이 코로나19 확산과 불별더위로 지친 국민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메



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입니다.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같은 정신과 취지를 담은 「스포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됩니다.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4회 국무회의

2021. 8. 3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국정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차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의 협업 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께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8. 9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



히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8. 30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합니다.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주민과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카불(Kabul)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 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산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겪는 고난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공감에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과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진, 의료진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의 급증세를 막아내고 있고,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우리가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모범국가로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어 일상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



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께 1인당 25만 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8회 국무회의

2021. 8. 31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운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주력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 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큼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적극적 재정투자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습니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입니다.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9. 6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 복귀와 민생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위기에 강한 나라,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많은 국민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식당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내 손안의 개인비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에 디지털 강국,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8월 수출도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역대 최단 기간 안에 수출 4,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 성장세를 보면 더욱 탄탄해진 우리 경제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물,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따라 상반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주력산업은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망산업들도 급성장하여 SSD는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고, 전기차 배터리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여 1위 중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세계 5위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간다면 우리 수출산업의 미래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



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0회 국무회의

2021. 9. 14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 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 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의 80%, 18세 이상 성인은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입니다. 2차 접종도 속도가 붙



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형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됩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됩니다.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구조 혁신 등 저탄소사회로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15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

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탄소저감기술 개발 투자 등 본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도 오늘 공포됩니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습니다.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군사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42회 국무회의

2021. 9. 28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 걱정입니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습니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나 선택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 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내고 백신 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국민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혁신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눈부신 도약이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혁신 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작년보다 다섯 계단이나 올라선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였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연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을 향한 혁신의 힘찬 발걸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44회 국무회의

2021. 10. 12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으로 세계인들로부터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어 스물여섯 개 단어에 ‘한복(Hanbok)’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복문화주간에 한복과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최근 10년간 12배 이상 증가하며 지난해 110억 달러에 달했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꾸준히 확대되어 올해 상반기에 19억 6,000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은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종목으로 떠올랐고 화장품 수출도 사상 최대를 경신하며 세계 3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우



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작활동의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와 70%를 넘긴 것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와 달러화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유통시장에서 가산금리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매우 의미가 큼니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백신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우리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기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4% 이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달 말 사상 가장 빠른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시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은 물가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가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적으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이 공포됩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기존 산업을 지능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8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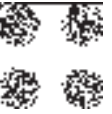
2021. 11. 9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은 숨 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목표 상향 등 기후 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협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Visegrád)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 했고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우



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께서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자부심도 우리 국민께서 가져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입니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接种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더욱 광범위하게 점

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53회 국무회의

2021. 12. 7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숏한 고비를 잘 헤쳐 왔습니다. 정부와 국민, 의료진 모두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에서도 모든 주체들이 단합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선도형 경제 전환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Omicron)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합니다.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여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요소수·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 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랍니다.

제55회 국무회의

2021. 12. 21

어느덧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19로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에 맞서 온 국민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19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 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



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관건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입니다. 그동안 병상과 의료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감당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 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병상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병원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내어놓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백신 접종에 점차 속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차 접종률이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은 면역력을 대폭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큼니다. 오미크론(Omicron)을 방어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지금의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회로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시련이 성공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입니다. 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22



제1회 국무회의

2022. 1. 4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Omicron)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 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전 부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호무역, 기술 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협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의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다음 달 발효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7대 급여의 보장 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



급 대상과 지급 금액도 더욱 확대됩니다.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 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보건·의료 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처는 국민께서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2. 1. 10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의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과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의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 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또한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



응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 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7회 국무회의

2022. 2. 8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Omicron)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 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

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000달러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를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 폭을 낮게 유지해 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2. 2. 21

지금 우리 정부의 오미크론(Omicron)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폭증이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진 외국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위중증 중심의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하여 대비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방역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썰غم 연장'에 불만이 큼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개편된 검사와 치료체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24시간 의료상담센터도 200개소가 운영되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병원과 의료상담센터를 더욱 확충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위중증 방지에 역점을 두면서도 재택치료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수급 불안은 조기에 진정되고 있습니다.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하여 가격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무상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소아·청소년들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 큼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Novavax)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국무회의

2022. 2. 22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마치는 대로 NSC 상임위원회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정보 공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운수 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미크론(Omicron)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장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되었고,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의 혼란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습니다.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일곱 계단 뛰어올라 세계 16위가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관리당국과 방역당국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됩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1회 국무회의

2022. 3. 8

내일은 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Omicron)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됩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중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 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 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 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하여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

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커져서 세계적인 과제와 국제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위협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기술 등 다방면의 위협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2. 3. 14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단합하며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

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Omicron)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더라도 확산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누적효과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병상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경제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확보에 나라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 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노고와 이재민
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3회 국무회의

2022. 3. 22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
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
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
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요인
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
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
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
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Omicron)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
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인류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Renewable Energy 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기대가 큼니다. 국민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2. 3. 28

현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혁신, 국제협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강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땀과 눈물, 역동성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국가적 성취입니다.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늘 시끄럽고 갈등 많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밑바닥에는 끝내 위기를 이겨내고 역사의 진전을 이뤄내는 도도한 민심의 저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큼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되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오미크론(Omicron)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의료 대응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고 위중증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는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기도 하고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검사체계와 의료체계를 신속히 개편하여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고비를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확진자가 줄더라도 누적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의료 대응 능력과 중증병상 확보 능력을 넘지 않도록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의료 대응체계의 변화와 함께 강제 방역에서 자율방역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율방역의 책임성을 높여주셔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2차 접종률이 매우 높은 데 비해 3차 접종률은 최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 예방접종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3차 접종과 아동 접종을 권장하는 이유는 접종 부작용의 위험보다 감염될 경우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접종 부작용의 위험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수석·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2021. 5. 10 ~ 2022. 5. 9

발행	대통령비서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인쇄·제본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발행일	2022년 5월 2일
